

화순군, 명품 숲 조성 '힐링화순' 브랜드 창출

산림 치유·휴양·레저시설 확충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발굴 운영 올해 20개 사업 303억원 투입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림복지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는 화순군이 '힐링 화순' 브랜드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산림치유·휴양·레저 시설 확충과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 발굴·운영, 산림자원 육성·보호 등 20여 개 사업에 303억원을 투입한다.

군이 올해 계획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의료연계형 국립 치유의 숲' 조성이다.

이 사업은 군의 제안을 산림청이 받아들여 추진하게 됐다. 군은 지난해 확보한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화순전남대병원 등 첨단 의료서비스와 산림자원을 연계한 산림복지 숲을 조성한다.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 사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공원 주변의 약 10ha 부지에 고인돌정원을 조성하는 데 90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 용역 등을 추진한다.

올해 천운산 산림레포츠 단지와 화순 국립수목원 조성에도 시동을 건다.

군은 천운산 일대에 복합 산림레포츠 단지(총사업비 120억원)와 국립수목원(총사업비 180억원)을 2022년까지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



화순군을 찾는 탐방객들이 만연산 '오감연결길'을 걷고 있다.

〈화순군 제공〉

성 조사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

'자연휴양림-수목원-레포츠 단지'를 연계해 산림휴양·치유 기능과 함께 즐길 거리를 제공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만연산 오감연결길을 중심으로 한 야생화원(사업비 8억원), 수만리 숲속 아영장 조성(10억원), 천현과 백야산 자연휴양림 리모델링(17억원) 등도 추진한다.

만연산 생애주기별 산림치유 프로그램, 목재문화체험장의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치유·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군은 산림자원(경관·조림)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만리 생태 숲 공원(사업비 5억원)을 조성하고 4월까지 197ha 임야 등에 경제림 단지, 미세먼지 저감 조림,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특화조림(견과류 웰빙 숲) 사업(사업비 약 20억원)을 추진한다.

또 숲 가꾸기 사업으로 지역 약 2400ha에 경제·공익·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사업비 38억원)을 육성한다.

생활권과 인접한 7곳에 '주민참여형 숲(숲속의 전남 만들기)'을 조성(사업비 약 6억원)하고 가로경관 사업(사업비 3억

원)도 계획하고 있다.

군은 산림 복합 경영단지 등 12개 산림소득 사업(사업비 6억원)과 함께 병해충 방제, 친환경적인 임도 조성 사업, 사방사업, 산불 진화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산림재해 예방사업도 추진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림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산림자원과 의료·문화유산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화순만의 산림복지 모델을 만들어 힐링 화순 브랜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익명의 천사' 올해도 설 선물 보내와

화순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 40상자 배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되면 어김없이 화순읍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익명의 천사'가 있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화순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입구에 7.5kg 들이 배 40상자가 이른 새벽 전달됐다.〈사진〉

배상자 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차상위 계층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익명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

지난해 설 명절 당시 사고와 배를 기부한 '익명의 천사'가 다시 찾은 것이다.

메모에는 "지위, 재산, 외모, 성격 등을 떠나서 한 명, 한 명 모두가 귀중한 존재라고 봅니다"라는 의견이 담겼다. 그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차상위 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는 메시지였다.

또 "이 글을 읽는 분에게도 감사함을 표하며 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합니다"라는 따뜻한 문구도 담겼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김연옥 화순읍장은 "배를 기부한 훈훈한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른 새벽에 다녀간 그 정성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며 "어려운 이웃의 명절 차례상 준비에 큰 도움을 준 익명의 기부 천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순읍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설 명절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후일 물품을 전달했다.

장성군, 군민 전체 '안전보험' 시행...외국인도 혜택

장성군은 외국인을 포함해 군민 누구나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군민 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보상규모는 최대 1000만원으로 안전사고(폭발·화재·붕괴)와 교통사고(행소니·무보험차·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10종의 사고에 대한 사망 및 후유장애를 보장하고 있다.

장성군민은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외국인도 대상에 해당된다. 또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던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장성군의 특성에 맞춘 세부적인 보장

내용도 눈길을 끈다. 장성군은 전체 인구의 28%가 고령층이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름철 일사병과 열사병에 쉽게 노출된다. 이에 따라 군민안전보험은 이를 자연재해 항목으로 포함해 보장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의 스포츠장에서 12세 이하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보장 항목과 상관없이 상해 등급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군민안전보험 전면시행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장성을 건설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군, 음식문화 지도사 등 3개분야 전문가 양성

장성군이 지역 외식 관광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음식문화 전문가를 양성한다. 장성군이 올 상반기 처음 도입하는 교육 과정은 음식문화 지도사와 해설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3가지 분야로 운영한다.

교육은 장성의 음식문화 정체성을 찾고 관광자마다 차별화한 메뉴를 발굴하는데 중점 둔다.

홍보 동영상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

스(SNS)로 장성 음식을 알리는 시도를 한다. 서비스 향상과 위생 관리, 국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한 음식 트렌드 대응 등도 다룬다.

장성군 관계자는 "음식의 유래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결집되면서 장성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외식 관광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한국 가사문학의 보고 담양군 남면 행정 명칭

105년만에 '가사문학면'으로 바꾼다

한국 가사문학의 보고(寶庫)인 담양군 남면이 '가사문학면(面)'으로 19일부터 명칭이 변경된다.

담양군은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이 오는 19일 시행됨에 따라 남면이 가사문학면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방위에 기초해 사용됐던 남면이라는 명칭은 시행 105년 만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됐다.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가사문학면 명칭은 단순 방위에 기초한 명칭에서 탈피해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정체성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만19세 이상 남면 주민 772명 대상으로 명칭 변경 찬반 설문을 실시한 결과 559명(72.4%)이 찬성, 201명(24%)이 반대했고, 무효는 12명(1.6%)으로 집계됐다.

담양은 면양정 송순과 송강 정철 등 당대 가사문학의 대가들이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낸 가사문학의 산실로서 18편의 담양 관련 가사문학을 비롯해 관련 누각과 정자 등이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남면 일대에서 관련 유산이 가장 많이 확인돼 가사문화권으로 불리고 있으며, 2000년에는 가사문학관을 개관해 가사문학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보존해 오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가사문학면 명칭 변경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사문학면의 가치가 담양의 브랜드 못지 않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남면은 면적 43km²에 인구수 1368명(699가구)으로 담양 13개 읍·면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적지만 소쇄원과 식영정, 환벽당 등 가사문학 유산과 명승, 기념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한국가사문학관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고, '가사문학로(路)'라는 도로도 있다.

/담양=서영준 syj82@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고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학과	○	○	
	국제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11(금) ~ 21(월)
- 전형일: 2019. 1. 24(목)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D.S.W.)	○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형일: 2019. 2. 8(금) 오후 2시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형일: 2019. 2. 8(금) 오후 2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